“대의왕 가르침 되새기며 중생 치유”

INTERVIEW

백옥란영예장 수상한

홍원숙 상하이중의약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8일 공정(龔正, 사진 오른쪽) 상하이시 시장이 홍원숙(사진 왼쪽)에게 ‘백옥란영예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옥란영예장’은 상하이 지역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8차 여성불자 108인인 홍원숙 상하이중의약대학 부교수가 9월 28일 한국인 최초로 중국 상하이 ‘백옥란영예장(白玉蘭榮譽獎, Magnolia Gold Award)’을 수상했다. 앞서 홍 교수는 지난 2017년 ‘백옥란기념장(白玉蘭記念獎 Magnolia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옥란장’은 중국 상하이시의 시화(市花)인 백옥란을 기념해 제정된 훈장으로, 상하이 경제·사회발전 및 대외교류에 공헌이 큰 외국인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한다. ‘백옥란장’은 1989년 제정한 ‘백옥란기념장’과 1992년 제정한 ‘백옥란영예장’ 2가지가 있다.

홍 교수가 이번에 받은 ‘백옥란영예장’은 ‘백옥란기념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백옥란기념장을 수상한 뒤 2년 이상이 지났거나 상하이와 3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는 데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만 수여된다. 현재까지 총 342명의 외국인이 수상했다.

현재에도 상하이 현지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 그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상하이 중의학 발전 공헌 인정돼
한국인 최초 ‘백옥란영예장’ 수상

난치병 가족 위해 중국 유학 결심
외국인 최초 상하이 중의사 거듭
108참회로 주체적 의료인 ‘고찰’

Q. 상하이 백옥란영예장 수상 소감은?

A. 부처님의 가피로 백옥란영예장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넓고 심오한 중의약 문화와 상하이 중의(海派中醫), 중의약 치료 체계를 한국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쓰겠다.

Q. 중국 중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A. 대학은 한국서 동국대를 졸업했으나, 가족이 난치병을 앓고 있어 1993년부터 중의학을 공부하게 됐다. 중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첫째는 꼭 학업을 성취해라. 둘째는 한국 하늘과 중국 하늘은 똑같다. 그러므로 부모가 항상 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002년 외국인 최초로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중의내과학 임상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전에는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龍華)병원·부속 서광(曙光)병원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상하이 민항구(閔行區) 중의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한국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겸임으로 역임했다.

Q. 사스(SARS) 때부터 중국 감염병 유행때 활약했다 들었다.

A. 지금까지 중의학계에 몸담은 지 28년이 됐다. 중국에서 지난 사스(SARS, 2003)·신종플루(2009)에서 코로나19(2020) 사태까지 상하이 환자들과 함께했다. 2003년 사스가 창궐할 때 타국 대학원생은 모두 귀국했다. 난 그때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병원 응급실에 배치됐다. 마침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는 의사다. 의사로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희생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배정된 응급실 환자를 정성껏 돌봤다. 또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상하이중의약대학 부속 서광병원 응급실과 발열 호흡기 외래 진료소(發熱門診)에서 9개월간 진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창궐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전통의학을 다루는 중의사와 현대의학을 다루는 서(西)의사(한국의 양방)를 구분하지 않고 대등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참여한다. 현재 발열 호흡기 외래 진료소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병원서 방역 준칙을 지키며 진료한다.

Q. 불교와의 인연은?

A. 우선 가족 모두가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부산 능인선원에 주석하며 불교 선차(禪茶)를 계승·전파하고 계시는 성각 스님이 제 언니이시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재학 당시 집에 있는 티베트불교 서적을 읽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물론 언니이신 성각 스님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성각 스님은 경봉(鏡峰) 선사를 통해 서울 방생선원 정관 스님의 상좌가 됐다. 저의 법명 만덕화(萬德華)도 고등학생 시절, 정관 스님께서 내려 주셨다. 스님께서는 법명을 주시며 “자라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만 가지 덕을 쌓아라. 살면서 덕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정관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살고 있다.

Q. 평소 마음에 새기는 경구는?

A. 〈임제록〉에 있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곳이 참된 곳이다’라는 의미인데 되새길 때마다 의료인으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된다.

Q. 평소 신행생활은?

A. 1993년 상하이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상하이 한국인 불자 모임인 ‘반야회(현재 용화선원)’을 다녔으나 지금은 옥불선사(玉佛禪寺)에 자주 간다. 이번 수상 직후인 음력 8월 15일에도 옥불선사 부처님을 참배하고 ‘백옥란영예장’을 부처님전에 바쳤다. 또한, 아침마다 108참회를 통해서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8차 회원으로서 선배 불자에게 배우고 있다.

Q. 향후 계획은?

A. 부처님의 칭호 중 하나가 ‘대의왕(大醫王)’이다. 질병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의학은 불교와 마친가지로 국경을 초월한다. 불자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디서 일하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희대 요승인가, 시대의 희생양인가?

日 도쿄선사, 재조명 시작돼

선사이자 일본의 ‘신돈’
정무 관여한 권력자로
비판적인 평가 받아와
객관적 연구 필요 제기

한국사에서 권승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악평을 받아온 묘청, 신돈과 같이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역사 속에 악평을 받아온 스님이 있다. 10월 2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외면 받아 왔던 ‘도쿄(道鏡)선사(?~772)’에 대한 재조명을 보도했다.

도쿄선사는 일본 고대사에서 천황을 감싸고 조정을 흔든 권승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전례가 없는 급진적인 출세가도 때문이다. 세도가의 후예로 태어나 일찍이 출가한 도쿄는 법상종의 교의와 범어를 수학하고, 특히 선(禪)에 밝았다고 전한다. 이로 인해 왕궁의 내불당에 선사로서 출입을 허락받았다.

그러던 중 천황이 중병에 걸리자 직접 간병을 하며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고, 왕이 완치된 이후로 특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출가자를 통솔하는 부관리자에 해당하는 소승도(少僧都)에 임명된 지 이듬해, 조정 대신의 관직을 받아 정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조정을 통솔하는 수장인 태정대신(太政大臣)에 임명됐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해에 법왕(法王)이라는 왕위를 받아 불교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소승도 이후의 관직은 모두 도쿄선사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관직이다.

도쿄선사의 일족이 고위직으로 중용되었으며, 심지어 도쿄선사가 천황이 되어야 한다고 신탁이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퍼졌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반대파들의 주장으로 좌천되었고 얼마 안 되어 입적했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도쿄선사는 정치에 깊이 관여한 야심가로 보이며, 오랫동안 국정을 어지럽힌 요승의 대표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도쿄선사는 시대에 휩쓸려 희생된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교토여대의 타키나미 사다코 명예교수는 “실제 사료적으로 봤을 때 도쿄선사가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악인이라는 증거는 빈약하다. 그러나 또 종교지도자로서의 눈에 띄는 공적도 없다. 시대의 격류 속에 휩쓸려 악명을 쓴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슈치인 대학의 교수인 사에키 슌겐 스님도 “도쿄선사는 필요 이상의 악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히려 도쿄선사는 불교의 이념으로 ‘적도 친구도 모두 평등함(怨親平等)’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도쿄선사의 출신지로 알려진 야오시(八尾市)에서 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유게지(由義寺)의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한 면이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칠층탑의 터와 예상을 초월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됐다. 또한 이 사찰에 천황이 직접 참배했다는 사료 등이 발굴되면서 도쿄선사가 단순한 권승이 아닌 중교적인 위신도 뛰어났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선사를 재평가하고 현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출신지인 야오시에서 결성된 현양회인 ‘도쿄를 아는 모임’은 도쿄선사의 좌상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악역으로 묘사되어 왔던 선사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서다. 완성된 좌상은 도쿄선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다이지(西大寺)에 봉안될 예정이다. 현양회 측은 “도쿄선사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알고, 올바르게 평가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번 발굴결과와 좌상 조성을 계기로 더 많은 연구가 진전, 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선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현양회가 조성한 도쿄선사 좌상.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